

SAMC | LAW REVISION

1. 물티슈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 세관장 확인 받아야

물티슈, 세척제, 일회용 컵·젓가락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이 세관장 확인대상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관세법」 대상 품목에는 드론, 가상화폐 채굴기, 전기자전거 등 8개 품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을 3월 16일 입안예고했다. 이에 수출물품은 총 12개 법령 1,389개에서 11개 법령 1,339개로(△50), 수입물품은 34개 법령 7,162개에서 35개 법령 7,389개(▲227)로 운영된다.

[Read More](#)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기간을 늘리고 신고센터를 확대한다. 무역위는 3월 8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기간을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Read More](#)

3. 관세조사 시 납세자 장부 보관하려면 '일시보관 동의서' 받아야

관세청은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방법 및 절차, 사후조정 경정청구기한 확대 등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개정(예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23일 입안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면 납세의무자로부터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연장) 동의서'를 받고, '일시보관증'과 '일시보관 장부 등의 목록'을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반환을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美·中 무역 전쟁, 또 발발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를 연신 부과하자 중국도 관세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정부가 중국산 가전제품, 신발, 의류 등 모든 품목에 관세와 對中 투자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2일 IT,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중국산 제품 100여개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中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으로 관세보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ad More](#)

2. “신 짜오! 베트남” 우리 2대 수출국으로 부상할까?

베트남과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베트남이 미국을 넘어 우리나라의 2대 수출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베트남은 2014년에는 우리나라 6위 수출대상국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앞지르며 4위로 발돋움했고, 지난해에는 홍콩을 추월해 3위 수출대상국으로 올라섰다. 한·베트남 교역이 증가하는 원인으로서는 한·베트남 FTA가 꼽혔다. 2015년 한·베트남 FTA 체결 후 수출은 60.5%, 수입은 6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ad More](#)

3. 中, 우리 스티렌에 반덤핑 예비판결

중국정부가 우리나라와 미국, 대만에서 생산한 스티렌에 반덤핑으로 예비판결했다. 스티렌은 가전제품 케이스나 부품, 자동차 내외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화학원료다. 中상무부는 “한국과 미국·대만산 제품이 중국 스티렌 업계에 실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사대상에 보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판결은 연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사실 없음’이라는 결과를 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철강관세 한국 면제 공식화...韓·美 공동선언문 발표

한미 양국이 28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안 및 한국에 철강 관세 부과 면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로 제정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한국에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철강 관련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된다. 양측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합의된 한미FTA 협상안은 발표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Read More](#)

2. 한·중·일, 1년 만에 FTA 협상 재개 ... 보호무역 타개 활로 될까

한·중·일 3국이 1년 만에 다시 만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했다. 미국 발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중·일 FTA가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활로가 될 지 주목된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이후 핵심분야에 대한 3국 간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Read More](#)

3. 한·미 FTA 6년 차 농·축산물 수입 패턴 다양해져

한·미 FTA 이행 6년 차를 맞은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전년대비 13.1% 증가했으며, 수입구조의 변화가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났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했다. KREI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수요가 늘면서 무역 창출 효과와 전환효과가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미국산 과일 중에는 작황이 좋았던 체리와 포도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무역창출효과를 보였으나 오렌지와 석류, 레몬, 자몽 수입량은 감소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